

都市住宅 收納空間 計劃에 관한 研究

— 寢室別 衣·寢 具類 收納空間 體積算定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Plan of Storage Space in Urban Housing

— base on the volume calculation of storage space
for clothes and bed-clothes in each rooms —

大邱大學校 家政大學 住生活學科

副 教 授 孫 光 濟

Dept. of Housing and living, Taegu University

Deputy Prof.; **Kwoang Jae Sohn**

<目 次>

I. 序 論	IV. 調查結果 및 論議
II. 先行研究의 考察	V. 結 論
III. 調查 方法 및 節次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uce user to use storage equipment as fixed storage space in urban housing. The object of investigation is limited to the resident of detached and apartment house in Daegu, analysed the problems and their attitudes of using storage equipments amount of cloths and bel-clothes. On the basis of these recommended the optimum volume of storage space for clothes and bed-clothes by family types.

Applied to the standard of detached house, the optimum volume of storage space for clothes and bed-clothes in each rooms are as following.

- 1) The volume of master room is ranged 7.34 M³ and 8.65 M³ the average is 7.97 M³.
- 2) Children's room is ranged 1.18 M³ and 3.26 M³, the average is 2.51 M³ under number of users and their age.
- 3) The aged room is calculated average 6.53 M³.

I. 序 論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근래의 지속적인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영향

*본 논문은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 되었음.

으로 생활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태도의 변화에 따라 생활의 양상이 다양화 되고 복잡해졌으며, 그에 부응하여 각종 생활용품이 증가되고 이를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수납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주생활 내용에 합당한 수납공간의 합리적인 배치와 기능성, 적정용적등의 문제가 주택계획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어 졌다.

특히, 종래의 주공간의 수납물에 대한 공간 계획이 소홀히 다루어진 관계로 거주자들의 실 이용과 수납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지적되어 왔다. 더우기 이사의 빈도가 잦은 산업사회에서는 이사시 운반의 불편함과 가구의 손상. 그리고 이사후 기존 수납장의 재배치시 야기되는 물리적, 심리적 제반문제 뿐만아니라, 새로운 수납장의 구입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들도 간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고정식 가구(Built-in Furniture)와 모듈러 가구(Modular Furniture)를 위주한 수납공간 계획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사용자에게 선호되지 못한채 공허한 주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¹⁾. 앞으로 이의 보급을 위해서는 국민의 가구선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주택의 수납시설 이용방식을 고정식 수납공간 이용방식으로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납시설 이용시의 태도와 문제점 및 가족형별 수납물의 용량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침실별 의·침구류 수납공간의 적정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용어정의

일반적으로 수납물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중 의류, 가재, 식품 등을 말하나, 본 연구에서는 의, 침구류도 한정 하였다. 소파, 침대, 식탁 등은 가구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수납시설이란 각종물건, 집기, 기구등을 정리, 저장,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수납가구는 수납용의 이동가능한 가구를 말하며, 수납공간이란 붙박이장 혹은 수납창고등의 고정된 수납장소를 의미한다.

II. 先行研究의 考察

1. 가구이용의 문제점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활공간이 필요하며 생명을 유지할 'Energy'와 수단으로서의 '도구'가 필요하며²⁾ 이들 요소와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활을 이루어 간다. 이때 도구는 생활의 수단적, 물적 조건으로서 생활공간과 생활행위를 연결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여 인간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공간은 가구라는 매체를 통해서 비로서 인간에게 활용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성립되어지며, 또 인간은 가구를 통하여 공간을 각각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는 생활공간에 있어서 작업능률을 높이며 휴식 및 단란행위를 원활하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수납공간 계획은 수납가구 및 공간이 주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크기나 모양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주생활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까지는 주거계획에 있어서 거의 수납공간 계획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또한 가구선택은 주공간과의 조화 및 주생활내용과 관련된 적합한 수납가구를 선택하기 보다는 가구를 장식화, 과시화 하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정규복, 1981, 이계현 1985).

이러한 경향은 경제기획원의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이해될 수 있다.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의하면, 80년대 이후 가구당 전체 소비 지출중 가구 및 집기의 구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의·침구류의 구입비도 최근에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2-1).

이는 곧 일반가구 및 수납가구의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짐을 의미하며, 가구의 양적 증가를 나

註 1) 허동국(1979), 정규복(1981), 이계현(1985) 등은 앞으로의 이주성이 높은 도시생활에서 붙박이장과 같은 고정식 수납공간(건축화 가구)이 건축설계시에 충분히 고려되어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영순(1982)은 가구의 모듈시스템을 주장하였다. 그러다 이숙영, 박영숙(1987)에 의하면 기존설치된 고정식 가구가 거주자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없애고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註 2) 持田照夫(1986)에 의하면 인간의 생활은 생활대상(object)과 생활수단(means), 생활공간(Room), 에너지(Energy)의 구성요소에 의하여 형성되어 진다고 하였다.

<표 2-1> 가구당 소비지출 중 가구집기 및 피복비 비율변화

(단위 : %)

년도	구분	가구 집기비	피복비
80		3.62	9.11
82		4.39	8.04
84		4.74	7.76
86		5.06	7.56
87		5.27	7.75

자료 : 경제기획원 통계연보

타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가구의 양적증가로 가구면적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침실공간의 협소화로 심리적 압박감을 더하게 된다(강무진, 1986). 이는 곧 주공간의 확대요구로 나타나게 되어 간접적인 이주동기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주성이 높은 도시생활에서는 이사시의 가구로 인한 번거러움과 가구의 파손, 이주후 공간과 가구와의 부조화로 인한 사공간(Dead Space)이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주생활면에서 살펴보면 수납가구(옷장, 이불장, 정리장등)의 수납정도는 수납물의 양적 증가로 인하여 충진율을 초과하고 있으며 의류의 경우 옷장 외에도 트렁크, 종이상지, 가방, 패ץ, 바구니등에 담아 가구에나 거상면에 누적시켜두거나, 혹은 벽면에 걸어 햇대보로 덮어두기도 한다(조성기 1974, 신상욱 1976).

이러한 실정으로 인하여 주공간의 거주성이 심히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는 주거계획시 수납공간에 대한 문제가 심사숙고 되지 않는 까닭에 많은 연유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현대 주거생활에 적합한 수납공간을 계획하고 설비할 수있을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할때 가구로 인한 불편함과 새로운 수납가구의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편리성과 생활공간의 효율적 사용등을 위하여 고정식 수납공간으로 유도함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특히 고정식 수납공간의 장점은 사공간(Dead Space)이 최소화 되며, 공간사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이주의 간편성과 공간의 이용도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적으로는 가정경제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허동국, 1979).

그러나 이러한 건축화된 고정식 수납공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수납공간 보급이 일반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심지어 계획, 설치된 시설마저 개조하거나 철거하는 사례도 있다(이숙영, 박영숙 1987). 이러한 고정식 수납공간의 개조동기는 물건정리상의 불편함, 색상디자인상의 문제점, 수납면적의 부족과 위치 및 깊이, 폭의 부적합등 기능상의 문제와 미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다. 이는 거주자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는 고정식 수납공간이 계획되지 못하고 편의적인 수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발생되어지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오늘날 주생활에 있어 공간사용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도시생활의 이동성과 관련된 새로운 주생활방식에 견주어 볼 때 고정식 수납공간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게 인식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주공간계획에 있어서 고정식 수납공간의 보급문제는 거주자의 다양한 취향과 생활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고정식 수납공간의 계획방안

수납시설은 건축공간이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능케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며 인간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쾌적감을 느끼게 하며 혹은 부담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수납시설을 생활공간의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서 그 필요충분조건이 다르며, 사용자의 관계속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 주생활에 비추어 각 실의 가구로서의 수납공간을 고정식으로 유도할 경우 실내공간의 분위기를 적절히 연출하기 위하여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등의 기능적 조건과 조형성의 미적조건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³⁾. 또한 침실을 사적인 공간으로서 차음 및 privacy가 보장되어야 할 뿐

註 3) 수납시설의 디자인은 기능(Function), 재료(Material), 구조(Structure), 형태(Form), 경제(Economy)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본논문에서는 적정용량의 산정에만 중점을 두었다.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의류 및 침구류)을 적절히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의 면적이 요구되어 진다. 각 실의 수납면적은 각 실의 사용자에게 따라 수납물의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형 및 가족수에 따라 수납공간면적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각 실의 수납공간면적을 추정하고자 한다.

1) 일반적으로 주침실의 수납시설은 이동식 가구가 선호되고 있으나 고정식 시설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침실을 가능한 고정식 수납공간으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규모는 가족형에 따라 각실 이용층을 전제로 용적을 산정하며 형태 및 기능은 가구주의 취향 및 성향을 전제로 선호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납면적은^{註4)}은 방면적의 15~25% 내외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실의 유효면적을 확보하고 수납시설면적으로 인한 실의 협소함을 줄이고자 함이다.

III. 調査方法 및 節次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도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인구 통계적 사항.
- 2) 수납시설의 상태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 3) 침실면적 및 수납시설 면적에 관한 사항.
- 4) 수납시설의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5) 의·침구류 수량 및 용적 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지역은 대구로 한정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조사자가 직접 가구주 혹은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註 4) 실태조사에 의한 바, 단독주택의 경우 방당 수납시설면적비는 평균 21.5%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17.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성기(1974)는 침실의 가구점유 면적을 19.5~26%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일본건축학회 기준에 의하면(시설계획 Data 집 1977) 실면적대 수납면적비를 13.7~21.8%로 권장하고 있다.

하였으며, 자녀(남·녀 대학생)들이 응답한 경우도 있다<표 3-1>.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후 본 조사를 1988. 6. 20~8. 20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본 학과 P.C. 16 Bit의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調査結果 및 論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가구주의 연령분포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40대와 50대의 연령이 전체의 78.9%로서 비교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표 4-1>.

2) 가족구조

우리의 가족구조는 전통적으로 장남부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직계가족구조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왔으나, 도시가구의 가족구조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직계, 방계 형태는 감소되는 반면, 부부를 중심으로한 핵가족 형태로 일반화 되어져 왔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조사에 나타난 가족구성의 형태^{註5)}도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한 핵가족 구조가 대부분이며(90.3%)그중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확장기(I형) 및 성장기(II형)의 가족구성은 전체의 14.6%이고, 장자녀가 15세 이상인 가정성숙기

<표 3-1> 조사 응답자 분포

구분	가구주	주 부	자녀(남)	자녀(여)	계
f	23	43	18	39	123
%	18.7	35.0	14.6	31.7	100

<표 4-1> 가구주 연령분포

구분	30세이하	30~39	40~49	50~59	60세이상	계
f	2	17	39	58	7	123
%	1.6	13.8	31.7	47.2	5.7	100

<표 4-2> 가족형의 분포

(단위 : %)

가 족 형		분포	비 고	
핵	I형	부부+자녀 2세 이하	0.8	가 정 확장기
		부부+자녀2-7세	6.5	
가	II형	부부+자녀8~14세	7.3	성장기
족	III형	부부-자녀15세이상(남)	8.1	가 정 성숙기
		부부- " (여)	8.1	
		부부- " 남,여	59.3	
직계	IV형	노부모+부부+자녀	8.1	
무 응 답			1.8	
계			100	

(III형)의 가족구성이 전체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계가족 형태(IV형)는 8.1%에 불과하다(표 4-2). 따라서 조사대상 가구는 가족생활주기면에 있어서 가정확장기와 성장기를 지나 가정성숙기에 있는 가구들로서, 이들의 생활수준은 소득분포로 보아 중산층으로 유추되어 진다^{#6)}.

3) 이사빈도.

조사대상가구의 이사빈도를 살펴보면^{#7)}'80년도를 기점으로 1회 이상의 이사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70.7%이다. 이를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1~2회의 이사빈도가 전체의 61.3%이고, 3회 이상의 5.8%인 반면, 아파트의 경우는 3회 이상의 이사빈도가 14.0%로서 단독주택의 거주자에 비해

註 5) 김 종인은(1982)「주택, 주택지, 학교」서울:대광서림 p 28에서 일반적인 가족주기는 자녀성장의 단계에 따라 가정창생기, 확장기, 성장기, 성숙기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서 핵가족형의 경우는 가정확장기(I형), 성장기(II형), 성숙기(III형)로 구분하고, 직계 가족형은 편의상 IV형으로 분류하였다.

註 6) 중앙일보(87. 9. 23) 국민생활의식 조사에 의하면, 중류가정(중산층)이라고 믿는 가구의 월소득 분포가 평균 64만원 정도는 조사된 바 있으며, 본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 분포는 60만원 이상의 가구가 73.1%를 나타냄으로서, 개략적으로나마 이들 가구들이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거주자의 이사빈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4-3).

2. 수납시설의 상태

수납시설의 상태를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동식 가구가 전체의 51.3%이며, 아파트의 경우도 대부분 이동식 가구이다(44.1%), 단독주택 보다는 고정식 수납공간 설치예가 비교적 많다(표 4-4).

이와 같은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이동식 가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가구가 생활면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을 살펴보면, 전기 콘센트와 스위치의 사용 불편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 외 공간을 가리거나 배치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응답을 한 경우도 있다(표 4-5). 이러한 원인은 주거계획시 수납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음에 있으며, 이는 곧 가구 이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생활에 불편

<표 4-3> 주택유형별 이사빈도

(단위 : %)

회	0	1	2	3	4	5회이상	계
유형							
단독주택	32.5	40.0	21.3	3.8	1.2	1.2	100 (80)
아파트	23.3	39.5	23.3	7.0	4.6	2.3	100 (43)
계(예수)	29.3 (36)	39.8 (49)	22.0 (27)	4.9 (6)	2.4 (3)	1.6 (2)	100(123)

<표 4-4> 주택형별 수납시설 상태

구 분	단독 주택	아파트	계(예수)
전부 이동식	51.3	34.9	45.5 (56)
대부분 이동식	36.3	44.1	39.1 (48)
반반이다	6.2	7.0	6.5 (8)
전부 고정식	2.5	4.7	3.2 (4)
대부분 고정식	3.7	9.3	5.7 (7)
계	100		100(123)

註 7) 경제기획원에 의해 조사된 1985년도 인구가동현황을 보면 등, 읍, 면의 행정구역을 벗어난 인구 이동은 전체 인구의 21.4%라고 하였으며, 이는 일본(5.4%), 대만(8.3%), 노르웨이(4.3%)보다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일 지역대에서 이주를 함께 고려한다면 실제상 이주빈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함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동식 가구의 배치로 인하여 사공간(Dead space)의 발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양 유형에 있어 발생빈도가 매우 높으며(80.5%),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19.5%에 불과하다<표 4-6>. 이를 볼 때 이동식 가구로 인한 사공간의 유발로 주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있어 불편을 초래함을 알 수 있다.

현주택으로 이사후 기존 가구의 처리문제는 상당한 고민거리로 응답하였다. 이는 새주택의 이주 시 기존의 수납가구가 부적합함이 많아 대부분 새가구로 교환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이다<표 4-7>. 예서와 같이 주택유형별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이주 당시 새로운 이동식 가구로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 구입할 계획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합하면 대부분의 거주자가 새주택으로 이사후 새로이 가구를 구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구, 의류의 수납시설 용적에 대한 반응을 파악해본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는 여유가 있거나(12.5%),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

<표 4-5> 이동식 가구사용의 불편 사항
(단위: %)

구 분	단독 주택	아파트	계(빈도)
창·문등이 가린다	20.6 (29)	18.5(17)	19.7 (46)
콘센트, 스위치의 사용불편	29.1 (41)	29.4(27)	29.2 (68)
위치의 부적절	16.3 (23)	19.5(18)	17.6 (41)
벽걸이와 맞지 않음	14.2 (20)	10.9(10)	12.9 (30)
방크기에 맞지 않음	17.0 (24)	15.2(14)	16.3 (38)
기 타	2.8 (4)	6.5 (6)	4.3 (10)
계(빈도)	100(141)	100(92)	100(233)

<표 4-6> 이동식 가구로 인한 사공간의 발생 정도
(단위: %)

구 분	단독 주택	아파트	계(예수)
많이 발생된다	8.8	16.3	11.4 (14)
조금 발생된다	71.2	65.1	69.1 (85)
거의 없다	20.0	18.6	19.5 (24)
계	100(80)	100(43)	100(123)

는 37.5%에 불과하며, 더 필요로 하지만 공간의 여유가 없거나(41.2%), 경제적 부담등으로 수납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를(8.8%) 함께 고려하면 많은 주택이 수납시설의 부족함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도 공간이 더 필요한 쪽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4-8>.

이러한 수납용적의 부족으로 인하여 의류의 경우, 옷장 이외에 상자나 트렁크에 넣어 가구위나 구석에 쌓아두는 경우도 허다하며 다른 방에 옮겨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납의 무질서는 주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3. 침실면적 및 수납시설면적

1) 주침실

주침실의 면적을 주택유형별 가족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침실면적은 13.89~16.31 m², 평균 15.41 m²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때 수납시설의 면적은 3.21 m²~3.91 m², 평균 3.74 m²로서 평균실면적 대수납시설 면적비는 24.26%로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주침실면적은 13.22 m²~16.61 m²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14.63 m²이고 실면적에 대한 수납시설의 면적은 2.5~3.21

<표 4-7> 주택형별 이주후 기구구입의 경향
(단위: %)

구 분	단독 주택	아파트	계(예수)
이사시 새로 구입	36.2	27.9	33.3 (41)
앞으로 구입 계획	8.8	23.3	13.8 (17)
경제적부담으로 구입못함	22.5	20.9	22.0 (27)
그대로 사용	32.5	27.9	30.9 (38)
계	100	100	100(123)

<표 4-8> 주택형별 침구, 의류 수납시설에 대한 태도
(단위: %)

구 분	단독 주택	아파트	계(예수)
공간이 남는다	12.5	4.7	9.8 (12)
적당하다	37.5	27.9	34.1 (42)
더 필요로 하다	41.2	60.4	48.0 (59)
경제적 형편이 안됨	8.8	7.0	8.1 (10)
계	100	100	100(123)

<표 4-9> 주택형, 가족형별 침실면적 및 수납시설 면적

(단위 : m², %)

주택형	가족형	가족수	방수	주택규모 (m ²)	안 방			방 2			방 3			방 4		
					면적 (A)	수납 (B)	B/A (%)	면적 (A)	수납 (B)	B/A (%)	면적 (A)	수납 (B)	B/A (%)	면적 (A)	수납 (B)	B/A (%)
단독	I	3.7	3.0	61.16	13.89	3.21	23.11	9.32	2.27	24.36	8.93	1.01	11.31			
	II	4.7	2.7	69.42	14.21	3.35	23.57	9.59	1.71	17.83	9.26	1.79	19.33			
	III	4.9	3.6	117.36	17.24	4.50	26.10	11.24	3.72	33.09	10.46	2.67	25.53	10.15	2.44	24.04
	IV	5.5	3.1	107.44	16.32	3.91	23.96	10.91	1.84	16.87	10.91	2.21	20.26	11.57	1.8	15.56
	평균	4.7	3.1	88.84	15.41	3.74	24.26	10.26	2.38	23.19	9.89	1.92	19.10	10.86	2.12	19.52
아파트	I	3.7	2.3	74.38	13.22	2.58	19.52	8.93	1.93	21.61	7.93	0.89	11.22			
	II	4.0	2.7	90.91	13.46	2.74	20.36	10.74	2.68	24.95	8.60	1.56	18.14			
	III	4.9	3.4	102.48	16.61	3.21	19.33	8.36	2.56	30.62	8.27	2.48	29.99	10.56	0.75	7.10
	IV	5.0	3.2	77.67	15.24	2.5	16.40	7.93	1.3	16.39	9.59	1.16	12.10	10.32	1.47	14.24
	평균	4.4	2.9	86.36	14.63	2.75	18.90	8.99	2.11	23.47	8.67	1.5	17.86	10.44	1.11	10.63

m²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2.75m²이고 실면적에 대한 수납시설의 면적비는 단독주택보다 다소 낮은 18.90%로 조사되었다<표 4-9>.

2) 부침실

부침실은 자녀실, 노인실등으로 이용되며 이들 실의 면적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를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평균 9.89~10.86m²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실면적과 수납시설 면적의 비는 평균 19.10~23.19%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각실의 면적이 단독주택에 비하여 다소 협소하여 평균 실면적은 8.67~10.44m²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납시설의 면적비는 10.63~23.47%의 분포를 조사되었다.

4. 수납시설의 선호도

1) 수납시설의 선호

주택유형별 가구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의 거주자는 대부분 이동식가구를 원하고 있으며 (78.8%), 아파트 거주자는 단독주택의 거주자에 비해 이동식가구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반면 (51.2%) 고정식 수납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9.5%) <표 4-10>.

그러나 효율적인 주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고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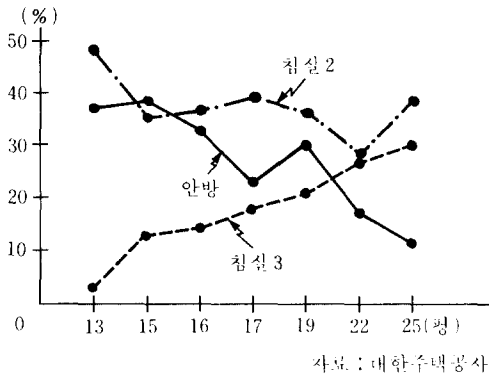
<표 4-10> 주택형별 거주자 가구의 선호

구 분	단독 주택	아파트	계 (예수)
이 동 식	78.8	51.2	69.1 (85)
불 박 이	17.5	39.5	25.2 (31)
절 충	3.7	9.3	5.7 (7)
계	100		100(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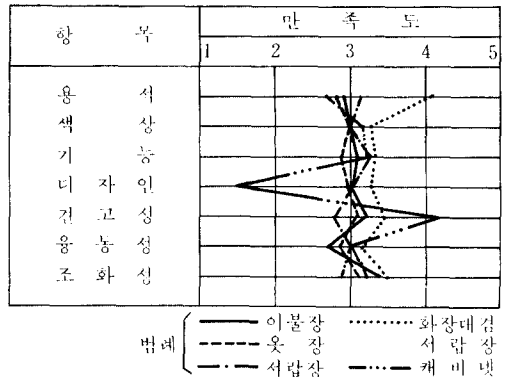
수납시설로의 유도가 있어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정식 수납시설이 거주자의 기호에 합당하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거주자의 수납시설선택 취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고정식 수납시설에 반영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2) 고정식 수납공간설치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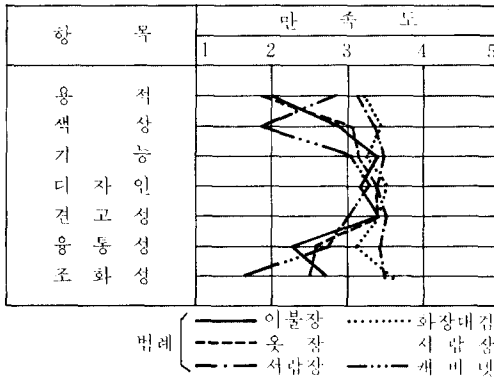
각실별 고정식 수납시설의 설치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살펴보면 주침실인 안방의 경우가 주택 전면적이 적을수록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주택규모가 확대 될수록 그 선호는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방으로 활용되는 침실의 경우에는 고정식 수납공간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1).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안방에는 가급적 고정식 수납공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며, 이는 안



[그림 4-1] 고정식 수납공간 설치에 대한 태도



[그림 4-3] 아파트 거주자 수납시설 이용 만족도



[그림 4-2] 단독주택 거주자 수납시설 이용 만족도

방이 주인침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외부손님에게도 개방됨으로서 순수한 수납의 기능보다 부와 지위의 과시 및 장식의 효과를 중시하는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수납시설 이용의 만족도

수납시설 사용상의 만족도를 안방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불장과 옷장의 용적 및 용동성 등은 불만적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서랍장과 화장대는 그런대로의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캐비닛을 안방에 두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이 경우 색

상과 디자인 및 다른 수납시설과의 조화에 있어 불만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2)(그림 4-3).

4) 고정식 수납공간의 설치시 요구사항

일반적으로 이동식 가구를 선택할 경우의 고려사항은 대부분 가구의 실용성과 디자인, 그리고 방과의 조화 경제성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만약에 현재의 가구를 고정식 수납공간으로 설치한다면 어떠한 사항인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거주자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표 4-11>과 같다. 여기에서 고정식 수납시설을 계획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위치의 선정, 기능성, 디자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납시설의 색상, 독창성, 그리고 타수납시설과의 조화성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배려가 뒤따

<표 4-11> 고정식 수납시설 설치시 요구사항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계(예수)
디자인의 우수성	15.9	13.8	15.2 (51)
색상의 선택	5.7	2.8	4.8 (16)
독창성	5.7	2.8	4.8 (16)
재료의 견고성	10.6	6.4	9.2 (31)
위치의 선정	21.1	21.1	21.1 (71)
적정규모	13.2	15.6	14.0 (47)
타가구와 조화	11.5	11.9	11.6 (39)
기능성	16.3	25.6	19.3 (65)
계(빈도)	100(227)	100(109)	100(336)

註 8)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주거후 평가방법개발에 관한 연구", 1986. 12 p. 104에서 도식화 하였음.

라야만 거주자의 기호를 만족할 수 있는 수납시설의 보급이 가능하리라 본다.

5. 수납공간의 규모계획

1) 수납물 용적의 추정

각실별 수납공간의 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의류 및 침구류 량을 주택유형별 평균 가족수에 따라 파악한 결과 단독주택의 거주자가 아파트 거주자보다 의류 보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12>.

단독주택의 경우 1인당 평균 의류량은⁹⁾가족형에 따라 1.21~1.68 m³의 분포를 보이며 침구류는 0.72~1.04 m³의 분포로 조사 분석되었다. 이를 합한 의·침구류의 수납량은 가족형에 따라 5.50~12.92 m³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9.23 m³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의 경우는 단독주택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며, 1인당 평균의류량은 가족형에 따라 1.13~1.31 m³으로서 평균 1.22 m³이고 침구류량은 0.69~0.95 m³으로서 평균 0.83 m³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이를 합한 의·침구류의 량은 가족형에 따라 5.19~10.73 m³의 분포를 나타내며 평균 8.0 m³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의 의류 소비경향에 비추어 의류의 양은 증가될 것으로¹⁰⁾ 예상되어지며 의류의 사용주기¹¹⁾는 관리태도 및 관리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생활주기면에서 볼때 가정을 이룬후 자녀성장에 따라 가족성장기 및 성숙기의 주기에 의류는 최대의 용적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가 약 150% 정도로 추정되며 침구류는 이보다 낮은 120%로 추정한다¹²⁾.

註 9) 송중석, 이인희(1975)에 의하면 당시 중소득 계층의 1인당의류량은 단독주택의 경우가 1.3 m³, APT가 1.1 m³이며 침구류는 단독주택이 1.0 m³, APT가 0.7 m³으로 조사된 바 있고, 김일진(1975)은 연령에 따라 의, 침구류량을 조사한 바, 21세 이상의 성년의 의, 침구량이 남성의 경우 평균 2.02 m³이며 여성의 경우는 평균 1.76 m³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본 연구의 조사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은 시차성과 지역적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註 10) 경제기획원(1987)에 의한바 소비지출경향중 의류, 침구류의 지출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12> 가족형별 의류 및 침구류 보유실태 (단위: m³)

구분 가족형 주택형	의류형	침구류량	계	1인당 평균 용량		
				의류량	침구류량	
단	I	3.45	2.05	5.50	1.21	0.72
	II	4.15	2.81	6.96	1.24	0.84
	III	7.25	4.27	11.52	1.63	0.96
	IV	7.98	4.94	12.92	1.68	1.04
	평균	5.71	3.52	9.23	1.44	0.89
독	I	3.22	1.97	5.19	1.13	0.69
	II	3.99	2.71	6.7	1.19	0.82
	III	5.52	3.83	9.35	1.24	0.86
	IV	6.22	4.51	10.73	1.31	0.95
	평균	4.74	3.26	8.0	1.22	0.83

2) 수납공간의 규모계획

각실의 수납공간 용적은 각실 이용자의 의류 및 침구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실태조사치를 통해 각실별 수납면적¹³⁾을 산정하

註 11) 송중석(1975)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의류이용주기는 2, 6년을 단위로 주기성을 띤다고 하였으며 3~5주기(초혼 후 8~13년) 사이에 의류는 최대치가 되며 이때가 약 150% 정도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註 12) 신상무, 차옥선(1984)에 의하면 침구류의 재구입은 대부분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크기가 적당하지 않아서이며, 점차 온돌식 취침방식보다는 침대식 취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추어 침구류의 수입량의 증가율은 의류의 증가율에 비해 다소 낮아질것으로 예상되어져 그 증가율은 120%로 가정하였다.

註 13) 선행연구에 의한 각침실별 수납공간 적정규모의 제안치를 살펴보면 김일진(1972)은 15평 규모주택의 경우 주침실의 적정수납규모는 1.59 m²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인희(1975)는 17~26평 규모주택의 경우 주침실 수납규모는 2.25 m²이 적정치라 하였다.

한편 건설부(1976)에 의하면 20평 규모의 주택의 경우 주침실의 수납규모는 4.0 m²이 적정치로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주택형에 따라 수납공간의 적정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에 따라 수납물의 양을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적정치를 산정하였다.

<표 4-13> 가족형별 각실 수납시설 용적 계획 추정치

(단위 : m³)

주택형	실명칭	주 침 실				자 녀 실				노 인 실				기 타 실				
		실 태		제 안		실 태		제 안		실 태		제 안		실 태		제 안		
		평균치	절대치	적정치	계	평균치	절대치	적정치	계	평균치	절대치	적정치	계	평균치	절대치	적정치	계	
단	I	의류	3.02	2.42	4.36	6.95	0.61	0.49	0.74	1.18					1.21	0.97	1.46	2.33
		침구	1.8	1.44	2.59		0.36	0.29	0.44		0.72	0.58	0.87					
	II	의류	2.48	1.98	3.56	5.97	1.24	0.99	1.19	2.20					1.24	0.99	1.49	2.50
		침구	1.68	1.34	2.41		0.84	0.67	1.01		0.84	0.67	1.01					
	III	의류	3.26	2.61	4.70	7.47	1.63	1.30	1.95	3.11					1.63	1.30	1.95	3.11
		침구	1.92	1.54	2.77		0.96	0.77	1.16		0.96	0.77	1.16					
독	IV	의류	3.36	2.69	4.84	7.83	1.68	1.34	2.01	3.26	3.36	2.69	4.04	6.53	1.68	1.34	2.01	3.26
		침구	2.08	1.66	2.99		1.04	0.83	1.25		2.08	1.66	2.49		1.04	0.83	1.25	
	평균	의류	3.03	2.42	4.36	7.06	1.29	1.03	1.55	2.51	3.36	2.69	4.04	6.53	1.44	1.15	1.73	2.80
		침구	1.87	1.50	2.7		0.8	0.64	0.96		2.08	1.66	2.49		0.89	0.71	1.07	
아	I	의류	2.82	2.26	4.07	6.55	0.56	0.45	0.68	1.01					1.13	0.90	1.35	2.18
		침구	1.72	1.38	2.48		0.28	0.22	0.33		0.69	0.55	0.83					
	II	의류	2.38	1.40	3.42	5.76	1.19	0.95	1.43	2.41					1.19	0.95	1.43	2.41
		침구	1.62	1.30	2.34		0.81	0.65	0.98		0.81	0.65	0.98					
	III	의류	2.48	1.98	3.56	6.04	1.24	0.99	1.49	2.53					1.24	0.99	1.49	2.53
		침구	1.72	1.38	2.48		0.86	0.69	1.04		0.86	0.69	1.04					
트	IV	의류	2.62	2.10	3.78	6.52	1.31	1.05	1.58	2.72	2.62	2.1	3.15	5.43	1.31	1.05	1.58	2.72
		침구	1.9	1.52	2.74		0.95	0.76	1.14		1.9	1.52	2.28		0.95	0.76	1.14	
	평균	의류	2.38	2.06	3.71	6.21	1.08	0.86	1.29	2.16	2.62	2.1	3.15	5.43	1.22	0.98	1.47	2.46
		침구	1.74	1.39	2.50		0.73	0.58	0.87		1.9	1.52	2.28		0.83	0.66	0.99	

※ 제안적정치는 증가율×절대치/총진율로서 산정됨.

면 <표 4-13>과 같다. 이때 적정치는 증가율×절대치/총진율로서 구해진다.

(1) 주침실

주침실은 주로 부부침실로 이용되며 유아가 있는 가족구성에서는 유아의 의류 및 침구류도 주침실에 보관하게 되므로 그 양도 포함되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침실의 수납용적은 평균 7.06 m³으로 5.97~7.82 m³의 규모로 산정되었다.

아파트의 경우는 단독주택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5.76~6.55 m³의 규모로 평균 6.21 m³으로 산정되었다.

(2) 자녀실

자녀실은 자녀단독 사용시와 공동사용시 그 용적이 달라져야 하며 수납공간은 의류및 침구류의 수납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놀이 취미도구등의 수납도 결합할 수 있도록 여유있는 공간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성장에 따른 의류량의 증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납용적 추정에 있어서 14세 이하 자녀의 의, 침구량은 성인의 1/2로 산정하였으며 실이용은 14세이하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15세이상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자녀가 7세 이하인 I가

족형에서는 1.18m³가 적절하며 그 외의 가족형에서는 2.20~3.26m³의 규모로 산정되어 자녀실의 평균 수납용적은 2.51m³로 산정되었다.

아파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나 평균수납용적은 다소 낮아져 2.16m³로 산정되었다.

(3) 노인실

노인실의 수납용적은 성인을 기준으로 노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단독주택의 경우 6.53m³이며 아파트의 경우 5.43m³로 산정되었다.

(4) 기타실

기타실의 수납용적은 각 가족형별 1인당 의류 침구량을 기준으로 하여 1인용으로 그 규모를 산정하였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2.33~3.26m³의 규모로 평균 2.80m³의 용적이 필요하며 아파트의 경우는 2.18~2.72m³의 규모로 평균 2.46m³의 용적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수납공간의 용적의 추정치가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산정한 까닭이며 사실상 아파트의 거주자는 공간의 한정성에 의하여 거주자의 요구에 충분한 수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후 수납시설의 설치 면적의 추정치는 주택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보다는 단독주택의 기준을 참고로 가족형에 알맞은 용적을 산정,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V. 結 論

수납시설 계획이 종래까지는 주거 공간 계획과 무관한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주생활에 비합리적인 면을 많이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주 성향이 높은 도시생활에 있어서 수납시설은 고정식 수납공간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사용자의 수납시설 사용태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통하여 적절한 의류 및 침구류의 수납시설 규모를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납시설의 이용은 대부분 이동식 가구를 사용하고 있으며(단독주택 : 89.6%, 아파트 79.0%), 고정식 수납공간에 대한 선호도는 단독주택보다는 아

파트와 높게 나타나고 있다(단독주택 : 17.5%, 아파트 : 39.5%).

2) 현재 사용중인 의, 침구류 수납시설 면적은 표 4-9와 같이 분석되었으며, 수납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단독주택의 거주자가 50.1%이며, 아파트 거주자는 이보다 높은 67.5%가 더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3) 고정식 수납공간으로 유도할 경우 거주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위치의 선정(21.1%), 기능성(19.4%), 디자인의 우수성(15.2%), 적정규모(14.1%) 순으로 나타나며, 그외 타수납시설과의 조화(11.6%), 재료의 견고성(9.2%)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수납시설의 만족정도는 주침실의 경우, 용적과 색상, 타가구와의 조화성등이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4) 의, 침구류의 용량은 단독주택의 경우 가족형에 따라 5.50~12.92m³으로서 평균 9.23m³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5.19~10.73m³으로서 평균 8.0m³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정한 각실의 의, 침구류 수납가구용적은 주택형별, 가족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침실별 그 용적은 실 사용자수 및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정된 각 실의 의, 침구류 적정수납공간의 추정용적은 다음과 같다.

1) 주침실은 단독주택의 경우 가족형에 따라 5.97~7.83m³으로서 평균 7.06m³이며, 아파트는 이보다 낮은 5.76~6.55m³으로서 평균 6.21m³으로 산정되었다.

2) 자녀실은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2.51m³이며, 아파트는 평균 2.16m³이고, 노인실 및 기타실은 각각 6.53m³과 5.43m³, 2.80m³과 2.46m³으로 산정되었다.

參 考 文 獻

- 1) 김종인, "가구이용면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 1972, 10
- 2) 조성기, "저소득층용 공동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74, 2
- 3) 송종석, 이인희, "소득층별 도시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75, 10
- 4) 김일진, "국민주택에 있어서 수납공간에 대한 고찰", 영남대논문집 제 6집, 1972

- 5) 허동국, “건축화 가구로의 유도를 위한 가구의용상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 대림공건대논총 제 2집, 1979
- 6) 신상옥, “도시주부 의생활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76, 10
- 7) 유장섭외 5인, “주택의 표준화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3, 2
- 8) 이계현, “주거의 수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9) 정규복, “주공간에서 본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1981
- 10) 이훈,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사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논문집, 제22집
- 11) 김규태, “아파트 가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구 13호
- 12) 유영배, “생활방식의 변화에 부응한 가구의 역할과 종류 및 올바른 선택과 사용에 대하여”, 가구 제 13호
- 13) 이숙영, 박영순, “아파트 불박이 가구개조실태 조사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5권, 제 2호, 1987
- 14) 신상무, 차옥성, “침구류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 15) 경제기획원 「통계연보」, 1987
- 16)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거주후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1986, 12
- 17)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의 설계지침(1)”, 1985, 12
- 18) 박영순, “현대가구에 나타난 모듈라 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1호, 1982
- 19) 一棟廣子, 上林博雄, “의류および침구의 수납について(제 1 보)(제 2 보) 일본가정학잡지 Vol. 33, No. 8, 10, 1982
- 20) 持田照夫「유태론」, 동경, 학술출판사, 1986
- 21) Hilary Arnold, ed. New House Book, Octopus Conran, London, 1985.
- 22) Rita Gilbert. ed. “A Practical Guide to Interior Design; Planning a Home”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79